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충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1월 2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230호



기해년 신년 종령 법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새해 아침의 밝은 태양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새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서 황금의

돼지해라고 합니다. 육십갑자의 천간(天干) 가운데 기(己)는 토(土)에 해당하고 색깔로는 황(黃)색을 뜻하므로, 기해를 황금의 돼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집안 살림을 늘려주므로 전통적으로 다산(多産)과 부(富)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토(土)는 생산을 의미하고 황(黃)색은 황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생산하는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돼지의 기해년에는 모든 교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증장하고 복덕을 길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황금을 찾아내듯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佛性)과 자비심(慈悲心)을 발현하는 기해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변함없이 믿고, 꾸준히 닦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불공이라는 정진 수행과 함께 구체적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자리(自利)이며 실천은 이타(利他)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불이(不二)인 것입니다.

또한 수행과 실천, 봉사는 머리



종령 법공 대종사

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팔만 사천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선심(善心), 자비심(慈悲心)이라고 하며, 그 실천이 선행(善行)이요 자

비행(慈悲行)입니다.

자비의 실천을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사섭법(四攝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자·비·희·사(慈·悲·喜·捨)로서 타인을 대할 때 지녀야 할 4가지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애(慈愛)하고, 연민(憐愍)을 느끼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불선(不善)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사무량심입니다.

사섭법(四攝法)은 보시섭·애어섭·이행섭·동사섭(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으로서 중생을 불도(佛道)로 섭수하기 위한 네 가지의 실천법입니다. 말하자면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한 네 가지의 바른 행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재물이나 진리의 말씀을 베풀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고락을 함께 하며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사섭법입니다.

사무량심과 사섭법을 실천의 지표로 삼아 기해년 새해에는 선행과 자비행을 무한히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 황금의 복덕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거듭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교충지중 제46주년 창교절 법회 봉행

종령 법공 대종사, “소중한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감을 가슴에 새겨야”



불교충지중은 12월 24일 창종 46주년을 맞아 기념 봉축 법회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충지중 본산 총지사에서 봉행된 창교절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종령 법공 대종사는 유시에서 “충지중은 이제 반세기에 접어들어

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잎과 드넓은 숲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할 시점이라며 “종조님께서 가꾼 밀법과 금강법계궁을 더욱 여법하게 장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어를 통해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 꼭 지켜야 할 예의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의 탄신일, 기일 등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조님께서 충지

중을 창종하신 날입니다. 충지중 교단을 창종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행자로 종조님을 스승으로 탄신일과 멸도절, 창교절과 같은 기념일을 잘 지켜 계승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 부부, 사제간, 그 외 수많은 인연중에 경중을 잘 따져 어떤 인연이 정말로 소중한 인연인지를 살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며 불·법·승 삼보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불교충지중은 1972년 12월 24일 종조원정 대성사에 의해 창종되었다. 이날은 한국에 밀교종단으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과 준제진언으로 교화하는 생활불교 불교충지중 창종을 천하여 선언한 날이다. 불교충지중은 삼밀유가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 이념으로 삼아 때와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천, 수행하는 종단이다.

기해년 통리원장 신년사



통리원장 인선정사

불자여러분
무술년이 지나가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대일

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불자여러분

지난 무술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희망과 감동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희망이 성큼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전쟁이라는 불안의 그림자가 거두어지는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국내에서의 이념갈등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여러 갈등이 심화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세대 간의 불화, 계층 간의 반목, 남녀 간의 부조화, 이념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불자여러분들의 질서와 조화의 지혜가 사회 곳곳에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혜는 실행에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자비를 근본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여러분

허공법계는 오고 감이 있지 않지만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은 세월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체중생의 입장과 바라는 바에 따라 방편도로서 일체지지(一切智智) 설하시니, 이는 오직 한 가지 모든 중생이 해탈미[解脫味]에 맛보게 하심에 있습니다.

기해년 한 해 이러한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도(眞言道)의 청정한 법문 속에 즉신성불이라는 해탈미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불자여러분들의 가정에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하시고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조/법/어

부처님께 공양하면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바른 법에 공양하면 지혜가 곧 증장한다

지/면/안/내

2면 교계 중정법어, 총무원장 신년사 5면 교구 신년사 6면 건화사 사원탐방 11면 통신원 소식

謹賀新年

총기 48년 불기 2563년



불교충지중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령 법 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정사

사감원장 안 성 정사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 령 정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충지중
진언밀교 충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아침 복(福)을 여는 즈음에 그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새해에 복을 여는 것이냐? 높은 산은 스스로 높고 낮은 산은 스스로 낮음이라.十方법계(十方世界)에 기해년(己亥年)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과 지혜의 새 빛을 비추어 사바(娑婆)의 짙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본래 시간(時間)도 없고 생사(生死)가 없건만 우리의 분별(分別)로 생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생겨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

己亥年 宗正猊下 新年法語

어나지 못합니다. 개개인인(箇箇人人)이 시간을 부리는 주체적(主體的)인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일각(一刻)이 무량겁(無量劫)이 되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간에 예속(隸屬)되어 무진세월(無盡歲月)도 경각(頃刻)의 생사(生死)일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등불을 찾고 아픈 환자들은 의사를 찾듯이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에 빠진 중생들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그대들이 서로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감사하며 물과 우유처럼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사느냐?”라고 하신 가르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세간(世間)의 극심한 경쟁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貪慾)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한 몸입니다. 사람이 부처이고 일목일초(一木一草)가 설법(說法)하고 산하대지(山河

大地)가 화엄세계(華嚴世界)입니다. 각자의 분상(分上)에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인욕(忍辱)하며, 타인(他人)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함께 할 때 상생극락(相生極樂)입니다. 모든 인류가 삶에 주인(主人)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하고 이 화두(話頭)를 쟁기고 의심하면 홀연히 깨닫게 되어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대안락과 대자유와 대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마디를 선사하니 잘 받아가주세요.

來年更有新條在
(내년강유신조재)하야
惱亂春風卒未休
(뇌란춘풍졸미휴)로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에 새음이 자라서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라.

진기 73년(己亥年) 새해법어

누구라도 몸과 입과 뜻을 살려 행할 때 자기 먼저 행복하고 이웃도 이롭습니다.

삼밀을 수행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가 부처요,
머문 곳이 밀엄정도입니다.

진각성종 회당대종사께서 ‘불법(佛法)은 체(體요), 세간(世間) 법(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마음을 가다듬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姿勢)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실천

하는 불자(佛子)들이 바로서야 합니다. 자기 먼저 바로서면 가족(家族)이 바로 서고 이웃과 사회,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더불어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자기(自己)의 양심(良心)을 좇아서 중심(中心)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身)·구(口)·의(意)를 바로 세우는 삼밀수행(三密修行)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를 실천(實踐)하고, 불자(佛子)로서의 근본수행(根本修行)인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수행(修行)하여 오대서원(五大誓願)을 성취(成就)하기 위한 서원(誓願)을 세워서 용맹정진(勇猛精進)합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신년사

사람들의 마음에 부기가 깃들고 청정한 재물이 증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국운의 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귀 기울여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중생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은 언젠가 행복의 결실을 맛보고,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덕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동체대비와 자리아타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법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해년 새해의 밝고 힘찬 기운이 더욱 상승하여 소통이 원활하고 만생이 상생하여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신년사

범인 가운데 하나의 범인으로 확정됐다. 이 제행무상은 불교의 표지(標識)로서 불법의 진실함이며 영원불변함이기 때문이다.

별써 해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태양계의 운행질서에 불과한 계절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인간들은 이런 자연 질서와 운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하여 새롭게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자하는 희망을 준비한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해가 바뀌는 서두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 소망을 염원하



이문덕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솟아오른 자비광명이 일체 만물의 행복과 평화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된 돼지의 해’입니다. 모든



편백운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석존께서는 제행무상을 말씀하셨다. 우주 삼라만상과 일체만물은 변화의 법칙을 떠나서 존립할 수가 없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한역할 때 제행무상을 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황금 돼지해의 밝은 해가 동해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찬 발걸음은 백두영산에서 한라영봉까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반만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밝고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서원으로 삶을 장엄하라

원력이 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 업력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서원으로 바꾸어 삶을 장엄하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리라.

자유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모두를 포용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구속하네.

비우고 또 비워서 무심이 되면 바른 기도가 되고 복을 짓게 되어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분별을 떠나야

모든 것은인연 따라 온 것이니 것들이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취하고 버릴 것이 따로 없어져 제법실상의 묘법을 보게 되리라.

기해년 신년법어

년 민족의 정기와 혼은 항상 백의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월을 건디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동강난 허리는 하나가 되고, 가시칠조망 사이로 쌓인 눈물이 감로수로 변하고 70년 해어짐의 설움은 만남의 기쁨으로 변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고 낙원이 되어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온갖 생명체의 행복한 동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발원하고 소원을 빕시다. 너나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지구촌은 우리의 마을이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는 큰마음 큰 뜻으로 함께 더불어 같이 웃고 뒹굴며 사는 공

동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다 같이 배부르고 नील리야 니나노 노래하며 추는 태평성대를 구가합시다. 부처님 제자들은 조금 덜 먹고 덜 즐기면서 남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옆에서 뒤에서 살펴주는 큰 수레보살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도리이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언행은 삼가고 조용히 입을 닫고 마음속 깊은 심연의 천 길 낭떠러지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출격장부의 기개를 보여, 인천의 사표가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사

기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비를 실천하여 이웃과 함께 복과 덕을 나눕시다. 정법과 정의는 위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인연과 자신의 본분을 소중히 하여 부단히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인연의 조건 속에서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원력을 통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유입니다.

돼지는 근면과 성실, 복과 재물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된 약자들을 지키는 친구가 되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나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굳건한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좋은 기운과 훈훈한 인연으로 밝은 새해를 활짝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63년 새해 元旦

진각종 통리원장 신년사



회성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지혜(智慧)의 눈을 뜨고 자비(慈悲)의 행(行)을 실천합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희망이 샘솟고 보람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목자족(智目慈足)하는 수행을 할 때 그동안 갈구하며 바라던 것은 희망으로 결실 맺고,

성취감은 보람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새해의 기운과 밝음이 동해부터 서해까지, 성인봉으로부터 금강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두루 비추어 희망과 보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비로운 행을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음공부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고 가꾸는 방편입니다.

시방삼세, 가림 없이 생겨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인연의 소산입니다. 오늘 맞이한 해가 어제 떠나보냈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연이어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했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남북문제는 물론 세계의 인류가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 경제도 보다 발전되어 고용이 창출되면서 너나없이 누구나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종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가 화합되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며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도덕윤리가 바로서서 인류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서원합니다.

든 것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여 변천해 가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꿈이나 환영이나 허깨비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며 천체의 운동법칙까지도 결국에는 무상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중생계에 사는 한, 이런 천체운동법칙에서 초연하여 존립할 수가 없음 또한 실상세계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한국불교도는 물론이지만 세계불교도, 남북한과 해외 곳곳에 사는 한민족

과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의 인류 전체가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침해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해년이 되기를 제불보살님 전에 두손 모아 축원 올린다.

BBS 불교방송국 이사회 개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3억 증감 승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12월 14일 제104차 BBS 불교방송국 이사회에 참석하여 불기 2563년(2019)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을 승인하였다. BBS는 2019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 코바코 상업광고 수입, 제작 지원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라디오와 TV 시청률 및 가정지역 확대, 만공회 운영, 상암 숲속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 모연, 노후방송장비 교체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한국불교종단협, 제5차 이사회 개최

불교인권위원회 산하단체 제명 논의와 2019년도 일반, 특별사업 승인.

12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부회장 종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 종단협 2019년도 사업으로 제22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중국대회),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중앙아시아고려인 한국문화체험사업, 제11차 한중수행교류(한국대회) 등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종단협 이사회는 “불교인권위원회” 산하단체 제명을 논의하였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는 1990년 재야불교운동단체로 불교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창립하여 활동하던중 2006년 5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단체로 가입 후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인권위는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종단협은 ‘불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 등이 때때로 친북, 반미성향을 보이거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극단적 성향을 보이며, 대외적인 문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로 표현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을 제명 사유로 밝혔다.

총지사 신정회장 이·취임식 봉행

신임회장, “부족하지만 부처님 사업에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에서 12월 9일 신정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전임 회장 박정희 보살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총지사 신정회장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 일하는 내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니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 감사합니다.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며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다.

앞으로 3년간 총지사 신정회장으로 살림을 맡은 신임회장 최영아(마니합창단 단장) 보살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제가 신정회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불자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부처님 법안에서 살고자 노력했고 맡음이 조용히 정진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막중한 본산 신정회 회장 자리를 맡기시니 걱정이 되지만 전임 신정회장님들께 누가되지 않게 소신껏 일을 잘 해보고자 합니다. 총지사 주교스승님 잘 보필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 500만원 기탁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연말이웃돕기의 일환으로 12월 19일 성금 500만원을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 사회복지과에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가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를 대신하여 재무부장 원당 정사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지역 사원과 교도들이 보내주신 작은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정신인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서원합니다.”며 이번 성금 전달의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재단=김태원 계장

제 2기 스승심화교육 성료

바쁜 일과에도 스승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소정의 성과 일궜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제2기 스승심화 교육이 12월 14일 교육으로 2018년도 교육이 종료되었다. 바쁜 일과에도 스승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제2기 교육에서는 기존 교육위원들 이외에도 범공종령님과 외부 초빙 강사도 강의에 참여했다. 교육을 주관한 중앙교육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단의 미래와 교화 활성화에 대한 대토론회가 일정 이 빠듯해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불사범요에 대한 심화 해설로 기본을 다지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심화교

육 등 당연시 여겼던 총지종의 교리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둔 점을 성과로 들었다.

집단 토론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공통과목 중심의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과목 개설 등 수강자 선택 중심의 교육을 요구했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종단 조직자 교육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스승들이 사원 경영상의 업무 과중으로 교육 받을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종단의 여러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교육 일정 잡기도 무척 어려운 점”을 들었다.

중앙교육원

제11회 한중불교 수행체험

중국식 참선수행을 중국 스님들과 함께 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23일부터 30일 7박 8일간 중국 남경 일대와 황산 그리고 형주로 이어지는 중국측 한중불교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불교총지종은 화음사 특경 정사와 수계사 현일 정사를 수행체험 프로그

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정사들은 24일 아침 5시 천녕사 대웅보전에서 아침 예불을 시작으로 중국 수행체험을 하였다.

천녕사 방자 스님의 환영사에 이어 천녕사 사찰내 천녕보탑 각 층별 순례를 하며 천녕사 도량 순례를 한 후 천녕사 호법전 3층 강당에서 중국 정조 스님의 중화 선문화에 대한 강의, 중국 싹핑 스님의 중국 불교 계율에 대한 강의와 중국 운당 스님의 올바른 신앙과 식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수행참가자 수계사 현일 정사

제11회 교육 메세나탑(교육분야 나눔 운동) 시상식

총지사 김성민 보살, “1천만원 상당 교육기부 참여 민간인부분 감사장” 수상

불교총지종 총지사 교도 김성민 보살은 12월 20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1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17년 10월에 불교총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에 컴퓨터 교체비용 1천만 원을 기탁함으로 금년 동해중학교장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김성민 보살을 추천하므로 교육 메세나탑 시상대에 오르게 되었다. 민간인부분 감사장을 수상한 김성민 보살은 “오른손이 보시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학생들을 위한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한 것



이 이렇게 소문이나 부끄럽습니다. 추천까지 해 이렇게 상을 다 받게 해주시니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소담하게 전했다.

총지사=최해선 교도



불교총지종

기해년 새해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오래 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 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종조법설)

일시 : 총기48년 1월 7일(월) - 1월 13일(일)

장소 :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Tel. 02. 552. 1080~3 www.chongji.or.kr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전화위복 마장이 곧 공덕된다

우리가 밀교에 들어와서 칠년을 지난 후에 오늘에 와서 그동안 칠일 간씩 삼밀로서 정진해오던 길을 돌아보면 칠일 정진 중에 일어난 마장은 다 법문으로서 행자의 인격을 완성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시련하여 금강같이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으며 난행 고행을 실행케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애착이 화해서 평등한 마음이 되게 하였고 탐심이 화해서 단시하는 마음이 되게 하였고 집심이 화해서 화합하는 마음이 되게 하였고 어리석은 마음이 화해서 지혜가 밝고 인과를 아는 마음이 되게 하는 도량이 되었던 것이니 사십구일 정진 중 당체설법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정진을 하다 보면, 나쁜 무언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으로 처음 인지가 되기 때문에 마장이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장이란 사실 공덕이 되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장은 법문으로서 행자의 인격을 완성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격이 완성되고 인간이 개조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뀌고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공을 함으로, 우리 안의 착하고 선한 기질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본래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칠일을 정진하고, 또 날짜를 정하여 일정 기간을 정진하고 또다음 계획을 세워 정해진 기간동안 정진을 한다는 것은 차근차근히 변화하는 과정을 밟는 것, 그 자체입니다. 몸과 마음이 난행과 고행을 겪어 견고하게 되고 좋은 기회로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공을 하며 업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이겨내면서 고비를 넘기다가 보면 업이 소멸이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이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월초불공도 있고, 자성일도 있고, 새해불공도 있으며 49제, 가정 불공 등 여러 가지의 불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면서 나 자신의 업도 소멸시키고, 나 자신의 인과도 알게 되며, 끝으로 진리를 터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체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설법이란 말로써, 문자로써, 듣고 읽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초월하여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법신불의 설법이라고 일컫고, 당체설법이라고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들리

는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바람소리 등 그 어느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형상 없는 법문이란, 불공하는 보살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하루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신불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진리로서 법을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형상이 있는 것을 초월하여 더 우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깨닫고, 보이는 것으로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2. 불에 공양하는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법에 공양하는자는 모든 지혜 증장하며 승에 공양하는자는 일체자량 증장한다
3. 불공중에 마장움은 공덕성취 근본이라 그를 걱정 하지 말고 육행으로 막을지라 만약 말로 변명하고 현실로서 막는다면 그일 점점 번거롭고 마장은 곧 크게된다

(종조법설집)

월초불공을 하지 않으면 한 달이 불행하고, 아침 정송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루가 일곱 개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 번 모이면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열두 개 모이면 일 년이 되고, 일 년이 여러 개 모여서 평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임을 기억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언제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일 년의 계획은 응당 새해에 세워야 좋으며,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기초를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조님께서는 하루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출발은 새벽이 될 테이므로 새벽 불공이라는 것은 불공하는 수행자에게 있어 아침 정송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눈을 뜨자마자 정송을 한다는 것은 하루를 잘 지내기 위한 지혜이자 슬기입니다. 자신의 생활습관에 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정송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다소 느지막하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

으나 모두가 가급적이면 아침정송을 행기도 록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듯, 일주일의 시작은 자성일입니다. 자성일이라고 산이며 들로 놀러 다니는 것과, 부처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늦잠을 자지 않고 절에 오는 그 노력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자성일과 그 시간을 지키려는 자세가 교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의 행복한 월초불공에 있습니다. 월초불공이란 일주일간 약속을 한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 달의 평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해불공의 기간도 월초불공과 같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공을 하는 강도는 어떤가요? 새해불공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고, 시간도 꼭 지켜야 하며 회사도 좀 더 정성을 쏟아야 하고, 임하는 마음 자세부터 다릅니다. 일 년을 생각하며 하는 불공이기에 일 년 동안의 계획과 다짐을 다잡는 불공이 새해불공입니다.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퇴전이란 물러나지 않는 것, 즉 심신을 바꾸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새해불공부터 시작해서 월초불공과 자성일, 아침정송을 바꾸거나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시작은 정송이며 정송이 모여 평생의 계획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께서 이는 아침 정송과 월초불공, 자성일, 49일, 새해불공 등 여러 불공을 정기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염주를 놓지 않을 수 있는 동기이자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절이나 행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오나 우리 총지종만큼 여러 이정표로 든든하게 삼을 수 있는 불공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종조님이 얼마나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임했으며 대단한 역량을 지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복덕이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복덕으로, 공양을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재물까지 통틀어서 풍족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장이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전화위복으로 여겨 육행으로 막는다면, 좋은 공덕으로 돌아옴을 강조합니다. 종조법설집에는 마장이 곧 공덕임을 누누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득(無所得)과 회향(廻向)하는 삶

“본래 얻을 것 없다는 무소득의 마음으로 회향의 삶을”

“대승보살행으로 다함께 행복한 불국토의 길 걸어가길”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어떤 삶이 펼쳐질까 설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모르게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안심입명을 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까. 그래서 무소득(無所得)과 회향(廻向)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능력 위주의 사회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한 결과를 오롯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뜻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능력주의 내지 성과주의가 관철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남에게 뒤지지 않게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이 장려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써 개선해 나가게 된다.

내가 더 노력해서 다른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면 인과법에 비취워서도 나무랄 데가 없을 듯 싶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각자 성격이나 관심분야가 다르듯이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성과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누구는 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나고 누구는 부족한 집안에서 나니 출발부터가 불평등하지 않은가. 그래서 부의 대물림만 아니라 부를 얻을 수 있는 학력도 본인 노력과 무관하게 차이가 나지 않은가. 이처럼 본인의 노력과 그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주위의 도움까지 감안할 때 이래저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인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방치해도 좋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성과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자비심이 간직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 선진국일수록 조건 없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좋은 것은 더 추구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생명 보전에 유리하도록 진화되었다고 보면 그 자체를 나무랄 일은 못될 것이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혼자만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놓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단견이 개인적 차별을 넘어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디언 전통에 포틀래치(potlatch)는 주인이 기념할 만한 의식에 사람들을 초대해 베푸는 축하연이다. 사냥해서 잡은 호랑이 모피 등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지 않으면 체면을 잃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가 한 곳에 집중되거나 머무르지 않고 골고루 곳곳에 분배되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행복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꿔왔는지 모른다. 수만 년 전의 원시사회에서 공동체의 삶이 이뤄졌다. 사회가 분화되며 사적 소유의 흐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함께 행복한 공동체적 사고가 깃들어 있음을 느낀다.

불교는 본래 얻을 것이 없다는 무소득의 마음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같은 지혜와 복덕이 본래 구축되어 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는 밖으로만 치달아 구하는 험찍거리는 마음을 돌려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가 세상의 은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뜰 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자신의 공덕도 독점 대상이 아닌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알고 회향의 삶을 살아간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은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뜻이다. 대승보살행도로 불국토의 길에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기자)



대승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밀교의 수행체계를 집대성한 최고의 밀교개론서

대승불교의 최고봉인 밀교 교리의 대중화
밀교사상사개론

편저 서운길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

기해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수현 정사
충청중의회 의장

무술년 한해가 가고 이제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기해년은 황금돼지해라 보살님 가정마다 재물이 넘쳐나라라 생각합니다. 자기 안의 부처를 믿지 않으며, 세상사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연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참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하고 백날 천날 부르면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간청하고 짹짹 물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기약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없는 갈애를 떨치지 못하는 저 많은 중

생들이 바라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천상에도 천하에도 없습니다. 100명이 다 1등 하기를 바래도 그 중에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99명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소망의 크기만큼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인연이라 이루어짐을 바로 알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바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단지

대복전(大福田), 큰 복 밭이어서 그 밭을 너그럽이 빌려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인과의 도리를 잘 믿고 바른 씨앗을 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 많은 부처님이나 훌륭한 스님들은 좋은 복 밭이기 때문에, 반면 내 마음 안은 아직 다 일궈져 있지 않고, 김이 때

져 있지 않고, 씨앗을 뿌려도 잘 자랄 수 없게 충분히 비옥하지도 않고, 여러 번뇌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깨끗하게 잘 갈아엎어져 있고, 골라져 있고, 토양이 비옥한 좋은 수행인의 밭을 빌려서 내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몇 톨의 씨앗으로 한 줌을 얻을 수 있고,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한 말의 곡식을 얻을 수 있고, 한 되를 뿌리면 몇 가마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과의 이치 때문이지 누가 그렇게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하고, 울며불며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복전에 내 복의 씨앗을 뿌리려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진심으로 내가 바르게 잘 살아나감으로써 또한 내 마음을 잘 닦아나감으로써 나 역시도 좋은 복 밭을 일구어서 다른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대승(大乘)의 마음을 발원해야 합니다. 또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아뇩다라삼박삼보리심인 최상승(最上乘)의 마음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경제해탈의 해가 되기를



정인화 전수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며 가족들이 건강하고 서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이는 기(己)가 황(黃)을 뜻하는 땅을 의미해 황금돼지의 해로 불립니다.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집안 살림을 늘려주므로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동물이며,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여 재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이 경제해탈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과 평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더 나아가 전세계가 경제위기, 종교갈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로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해탈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

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법경 정사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해년에는 가족 모두 행복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채가 새해 아침의 밝은 태양과

공덕의 가피를 듬뿍 받으소서

같이 일체에 광대원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넓은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태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넓고 크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고 태양과 같은 지혜와 자비는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고 온 누리를 평등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피(加被)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태양이 동쪽 하늘에 솟으면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다음에는 낮은 산을 비춘다. 그러나 태양

은 여기를 먼저 비추고 저기를 뒤에 비추리라는 차별의 생각이 없고, 다만 땅이 높고 낮음이 있는 까닭에 비춤에 선후의 분별이 있는 것이며, 여래도 이와 같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 또한 땅과 같아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자신의 심기(心器)에 따라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태양이 제일 먼저 비추는 높은 산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공덕의 가피를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안성 정사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

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은 황금의 돼지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다산(多産)과 풍요(豊饒)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산의 의미처럼 정진과 실천으로 공덕과 복덕을 증장하는 한 해가 되고, 몸이 강건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넉넉하여 무사(無事)하고 무난(無難)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 둘씩 풀려 나가는 상서로운 기운이 충만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발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안한 생활은 마음의 화평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이 편안한 것은 원

수를 맺거나 원한(怨恨)지는 일일 없기 때문이며, 근심하거나 애태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곁림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여 즐거움을 받으므로 삼고 다툼과 성냄이 없어 자비를 찬(餐)으로 삼아 큰 지혜와 안락함을 얻게 됩니다.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여 풍요로움을 즐기는 진언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지정 정사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기해년 돼지띠 한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의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두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돼지띠로 돼지는 베풀며 나누는 자비와 보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사바세계

베풀며 나누는 삶

는 인욕과 인연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고통의 나날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지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욕과 서로 실타래처럼 엉켜어진 인연속에서 실타래를 풀 듯 조금씩 조금씩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악연의 인연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욕과 인연의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나누고 베푸는 삶속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먼저 베풀지않고 남이 나에게 베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서로간에 복잡하게 얽혀어진 인연의 끈을 풀 수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최선의 길은 참회와 보시법에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내가 먼저 참회하지 않고서는 서로간에 얽혀어진 악연을

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보시하지 않고서는 남이 나에게 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기위함이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의 욕심과 탐욕에서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분쟁, 형제자매간의 싸움, 친구와 이웃간의 다툼 이러한 모든 원인은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나눌 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해년 한 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지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기해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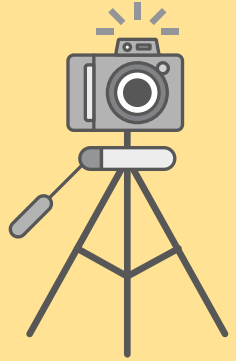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 황윤희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 신정회 지회장 최윤정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사//원//탐//방

아 되 어 화 합 하 는 사 원, 건 화 사



①



②



③

▲ 사진 = ① 한궁당시 모습 ② 건화사 ③ 주교정사 훈향 정공

경주 동부 교화 중심 사원, 건화사(建和寺)



▲ 건화사 약도

건화사

건화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38-3번지에 위치했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주시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포항 KTX역에서 더 가깝다. 건화사는 기본적으로 세울(建)에 화합할 화(和)자를 사용하는데, 건에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제외하고도 다른 의미가 더 많다. 개중에 하나는 아뢰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건화사의 정체성을 잘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의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이다.

마을의 규모, 보존 상태, 문화재의 수와 건축사적 가치, 유교적 정신유산과 전통 양반문화 및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등이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이번(李蕃)이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일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고, 이들의 맏아들이자 동방5현의 한 분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선생이 배출되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오늘과 같은 양동마을이 형성되었다. 양동민속마을이 외손마을이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며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실제 남자가 처가를 따라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풍덕 류씨의 후손은 절손되어 외손인 손씨 문중에서 제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3년에 창건되었다. 서원은 1574년에 '옥산(玉山)'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흥선대원군이 전국 47곳의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을 철폐할 때에 훼손되지 않은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전형적인 서원의 구조를 갖춘 이곳은 명성에 어울리는 당대 최고 서예가들이 남긴 현판을 감상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깊다. 추사 김정희가 남긴 옥산서원 현판을 시작으로 한석봉, 노수신 등 명필가의 솜씨가 담겨 있다.

건화사 사람들

건화사의 신정회 회장인 류옥순 회장은 2018년으로 임기를 마감한다. 건화사는 3년 주기로 회장



④



⑤



⑥

▲ 사진 = ④만다라봉안불사 ⑤ 기념 사진 ⑥ 설법하는 전수

부지런한 공덕으로 덕을 쌓는다

직 교도들이 직접 선출한다. 재임하는 경우도 있고, 연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주기적으로 투표가 열린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류옥순 회장은 “3년 주기로 투표하는 정도가 부담스러우면, 회장직 말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재임이나 연임에 상관없이 늘 최선을 다 하였고, 앞서 회장직을 맡아주신 모든 보살님들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회장직이라는 자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됩니다.”라며 강단있고 멋있는 면모를 보였다.

류옥순 회장은 현교를 다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사찰을 돌다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현재는 입교한지 35년이 넘는 상수 보살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인연이 깊은 스승님을 묻자 “지광 정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를 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힘들어 하며 주저 앉은 저를 일으켜 주신, 인생의 멘토같은 감사한 분입니다.”라며 과거를 회고했다.

또한 현재의 주교인 법상 정사와 정원 전수에

대해 묻자 “보살님들과의 호흡이 잘 맞습니다. 공하면 짝하고 무엇이든 바로바로 알아주세요. 늘 저희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열 번 질문을 하면 열 번 다 정성스레 답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젊으신 스승님들이라 늘 재밌고 사원 자체도 굉장히 젊어진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라며 아끼지 않고 스승님들을 칭찬했다.

사원의 보살님들에 대해 묻자 “모든 일들에 대해 협조가 빠르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온천욕도 가고 꽃구경도 합니다. 다들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주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라고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류옥순 회장은 “스승님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라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스승님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보살들도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제도하기는 어려운데, 빠지는 사람은 늘어나니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시는 스승님들 마다 사원을 위해 떠나시기 전에 무엇이든 하나 더 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더 많은 교화발

전으로 서원당이 시끄러워지길 바랍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초파일엔 두 스승께서 직접 합장주를 만들어 나눠줄 정도로 정성이 각별하다. 또한 두 스승은 올해 건화사에 놓인 아주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하였다. 건화사 입구로 들어오는 골목의 땅이 팽지었는데, 그 땅을 구입하였다. 또한 법당의 반이 물려있던 경로당의 땅도 구매하여 건화사의 고민을 덜었다.

정원 전수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가 전체적인 나이가 높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제도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욕심 내지 않고, 일단 현재 계시는 보살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소신을 비추었다.

이어서 “내년이면 건화사로 온지 햇수로 6년째입니다. 모든 보살님들이 참으로 양심적이고, 순박하십니다. 시골 분들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타고난 천성 같습니다. 한편으

론 계율을 지키는 것엔 저보다 더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식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평일에 사람이 많이 없을 경우 불공 전에 솔직히 잡담도 좀 하고 핸드폰도 좀 보고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서원당은 오직 불공하는 곳으로 염증이 아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도 우직하고 진실하다고 느낍니다.”라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법상 정사의 자성일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교통이 불편한 탓에 아침 일찍 나가서 모든 보살님들을 차에 태워 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법상 정사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공덕을 쌓으면 좋죠. 별로 귀찮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자성일에 서원당에 올라가서 불공하는 거 귀찮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미 보살님들을 태우러 가고, 마지막에 다시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까지가 저에게는 다 공식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살님들이 교화되어 더 많은 분들, 더 먼 곳까지 모셔다 드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박석라

주교 : 법상 정사

주소 : (780-809)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원교동길 6-4 (양월3리 1138-3)

전화 : 054-761-2466

지상 설법

상대의 허물이 내 허물의 그림자다



건화사 정원 전수

참회는 목은 습관과 생각을 바꾸며 자신의 주위를 고요로 물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타인과의 관계를 푸는 것에, 그러니까 좋지 못한 업으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참회입니다. 업장소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참회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찍 남편의 여의고 힘들게 생활고에 시달리며 삼형제를 키우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에겐 힘든 삶을 이겨내며 모든 자식을 바르게 키워 결혼까지 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보살님은 머느리가 늘 언짢았습니다. 어쩐지 아들을 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신도 모르게 트집을 잡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머느리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가정의 분위기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머느리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여생을 절에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싶다는 뜻을 아들에게 말하였고, 그리하게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고, 보살님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머느리가 나

왔는데 너무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머느리와 싸우게 되었는데 머느리의 말대꾸에 열이 뻗치는 참나, 자신의 머리 위로 쌍칼이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깰습니다. 보살님은 머느리와 연이 다 풀린 것이 아님을 깨닫고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업장소멸을 하는 참회기도를 하며, 기도가 끝난 뒤 머느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삼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보살님은 스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배를 올린 지 1년이 지났을 때, 보살님은 확실하게 변화하였습

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편안함을 얻은 것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머느리는 차츰 보살님을 찾아 절에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머느리와 관계가 개선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머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회기도를 통한 인간의 에너지는 늘 통하는 법입니다.

결국은 누가 변해야 하나?
내가 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오롯이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변화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타인을 괴롭게 하지 않는가. 나는 타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은 늘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느끼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합니다.

나에게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나의 법문입니다. 어떤 법문이 있을 때 남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계의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상대를 탓하는 것은 인과법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을 나의 것으로 돌려 참회하고 닦아나

가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법문을 남의 것으로 돌리면 원망심이 깊어져 업장소멸은 커녕 죄업만 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이 지은 잘못을 참회하며 나의 말이, 행동이, 생각이 부처님과 같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즉시 참회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회와 더불어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윤복자 교도

서원을 이루는 네 가지 지계·인욕·정진·보시의 힘이 있다

어렸을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각종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과 인연에 따라 74년도에 총지종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어릴 때부터 부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기에, 불교라는 것은 제 인생의 일부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적에는 오직 불공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단 한 번도 저의 숙제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불공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늘 결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후, 급쪽같은 삼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취업, 결혼 등 모든 문제 역시 불공으로 이겨냈습니다만 유달리 오래 걸리는 숙제가 단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 고등학생 때 말청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이 나와 아들의 업이거니 생각

하여 오직 불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한 결과였는지 다행히 사춘기 때 부리는 말청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 무탈히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의 혼기가 짝 찼는데, 도무지 장가를 가지 않아 각자님의 불만이 많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는 결혼을 하여 조카가 생기는 마당에, 둘째 아들은 전혀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주위 어른신들의 걱정이 늘고 잔소리가 늘자, 둘째 아들은 가족 모임에도 점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끈을 놓지 않고, 아들의 결혼을 서원하며 늘 불공정진 하였습니다.

불공에 박차를 가하는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청암 정사님께서 꿈에 나오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인사조차도 잊고 둘째 아들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사님께서 인자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 다 들어주시더니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살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건화사 전수님을 찾아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저에게 전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장손이 장가를 가야 대를 잇는 것이고, 그것이 자손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살님께서도 자손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상님과 시부모님을 위해서 염송을 외고 불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저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부처님 제가 자손의 도리를 다 하지 못 하여 죄송합니다. 참

회합니다.”하는 마음으로 옹맹정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용돈을 쓰라며 체크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용돈을 모두 불공을 드리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저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불공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꿈을 꾸었습니다. 발에 박이 한 가득 주렁주렁 열려있고, 반대쪽의 발에는 고추가 파랗게 열결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하는 도중,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집에 여자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 하였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에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아들의 여자 친구를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몰라 조금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도 참하고 예쁜 아가씨라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2015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올해 6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풀게 도와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경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서원이 있다면 네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계의 힘, 인욕의 힘, 정진의 힘, 보시의 힘 이렇게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서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중에 하나라도 허투루 한다면 속제는 풀기 힘들 것입니다. 경을 읽고 나서는, 정진은 기본이며 서원을 발원하는 동안 인욕하고 보시하며 늘 계율을 지킵니다.

특히나 저는 공양처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 힘이 닿는 곳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의 서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인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는다는 것이 가장 쉬워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 아이도, 오래산 저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위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뿌듯하고 인욕한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보살님들도 네 가지의 힘으로 원하는 서원 모두 이루시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리라이팅=박설라



전금자(향로심) 교도

불공과 함께하는 생활 그 자체를 누리세요

사는 게 힘이 들어 어디라도 기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다니는 절이나 교회, 믿고 찾는 점집 등을 소개해주려고 하였으나, 꼭 새로운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 약속이 취소되고는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런 일정이 없으니, 함께 그 절에 가보자.”

“모래에는 같이 우리 교회에 가보자.”

라고 하여도 약속된 날에 꼭 무슨 일이 생겨 가기로 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듯 하여 외롭고 쓸쓸합니다.

“시내에 있는 절에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이웃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절의 위치를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절은 웅한 건물이었고 부처님도 보이지 않았으며 바닥에 무언가만 짝 깔려 있었습니다. 안쪽에 향로만 하나 있었고 스님이라고 있는 분의 머리가 길고, 빨간색 도복을 입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절이 참 이상한 모양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혼자 찾아가게 된 절이 총지종의 국광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꿈속의 모양새와 거의 비슷한 절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모습도 일반 스님과는 다른 점이 꿈과 꼭 같았습니다. 막상 가본 절에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얼굴도 몇몇 보였기에 더 마음이 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왔다고 하니, 뻔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앞에 앉아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

니다. 앞에 앉으니 불상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있는 향로만 보여서 그걸 보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따라 염주를 돌렸습니다. 스승님께서 앞에 보이는 다리니가 본존이며 여섯 부처님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 참 신기하네요.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보살님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불공을 하다보면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마음이 형용어지지 않게 꾸준히 꼭 주시길 바래요.”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한다는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따라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잘 되지 못했던 일이 떠오르며, 국광사에 출

로 찾아오게 된 것이 하나의 운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일과 시간을 매번 지켜 절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정상 못 갈 때도 있었고, 마음이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수님은 저를 챙겨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왜 안 오세요? 불일이 있다고요? 불일이 있으면 절에 왔다가 불일 보러 가세요.”

전수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절에 달려간 적도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가정이 파탄난 일입니다. 가정이 깨지자 먹을 식량이 없어 고생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봉지라면 하나를 꿰어다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셋을 먹이고, 저는 굶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가 죽어도 이만큼을 울지 않겠다, 싶

을 정도로 하늘을 보면서 통곡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다른 보살님들이 회사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십 원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은 지폐도 넣고, 만 원짜리도 서슴없이 회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니 한없이 부럽고 또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회사를 해볼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내게도 저런 날이 오겠지, 저런 날이 오기는 율까, 하고 우울해하곤 했다가도 불공으로 치유를 받곤 했습니다.

돌아켜보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흔쾌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많았고 절에

서도 쌀을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회사를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쌀을 못 가지고 오면, 다른 보살님이 꼭 우리 집에 들러 쌀을 대신 가져다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은혜들을 다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가계에 만든 보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총지종의 좋은 점을 묻는다면, 저도 선불리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 셀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불공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는 불공과 함께 하는 생활, 그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시다.

리라이팅=황보정미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철학박사)

삼매야(三昧耶)

밀교에서 삼매야(三昧耶)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교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밀교는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하며, 즉신성불을 위한 교리와 수법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중심에 삼매야의 교리체계가 시설(施說)되고 있다. 불퇴전의 믿음과 수행, 깨달음이 부서지지 않는 금강(金剛)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삼매야로 더 많이 기술된다. 또한 삼매야는 수행법, 작법뿐만 아니라 계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밀교의 계율을 특히 삼매야계(三昧耶戒)라고 부른다. 또 삼매야계는 보리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계(菩提心戒)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삼매야는 무슨 뜻인가? 불교대사전에서는 ‘삼매야란 부처님이 수행하던 때의 서원(誓願)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밀교에서는 여기에서 평등(平等), 경각(警覺), 제장(除障)의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삼매야는 불보살의 서원(誓願)을 가리킨다. 그래서 삼매야를 본서(本誓)-본원(本願)이라고도 한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서원이란 뜻으로서, 불보살의 총원(總願)이자 통원(通願)이다. 일체 서원을 모두 합친 서원이므로 총원(總願)

이요, 모두에게 통하는 서원이므로 통원(通願)인 것이다. 그 본서(本誓)는 바로 자리행의 즉신성불과 중생구제의 이타행이다.

이러한 삼매야를 줄여서 삼매(三昧)라고 부르는데, 이는 삼마지(三摩地)를 뜻하는 삼매(三昧)와는 다르다. 삼마지의 삼매는 마음이 통일되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선정(禪定)과 같은 말이다.

밀교에서 삼매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옹어만 다를 뿐 결국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는 술어로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삼매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 보자.

삼매야(三昧耶)는 본서(本誓) 평등(平等) 경각(警覺) 제장(除障)의 뜻

먼저 본서(本誓)의 뜻이다. 본서(本誓)는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무상보리에 이르게 하겠다는 대서원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보리에 이르기 위하여 다양한 방편들이 제시되고 있다. 삼밀수행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자관(字觀)이 설해지고 작법(作法)과 실천법 등이 설해진다. 그 실천교설 가운데 하나로써 학처와 계율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대일경』의 경우 「지명금계품」이나

「수방편학처품」 「진언행학처품」 「증의수호청정행품」 등에서 진언행자가 지녀야 할 수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수행방편으로서 모두가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삼매야의 가르침인 것이다. 본서(本誓)의 의미를 지닌 삼매야는 구체적으로 소지물(所持物)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를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 한다.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칼·탑·구슬·연꽃·창·염주·활 등이 삼매야형이다. 이 삼매야형으로 이루어진 만다라를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라고 부른다. 금강계만다라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두 번째로 삼매야는 평등(平等)의 뜻이다. 「삼삼매야품」에서 삼매야는 삼평등(三平等)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삼평등인가 하면, 심(心)과 지(智)와 비(悲)가 평등하여 하나요, 법·법·승이 셋이면서도 하나로서 평등하며, 법신·보신·응신도 셋이지만 본래가 평등일여(平等一如)한 것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도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삼삼매야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삼매야는 일여일체(一如一體)로서 하나라는 의미이다. 화엄교학의 밀교적 계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삼매야는 경각(警覺)의 뜻이다.

경각이란 퇴전하는 중생에게 겁을 주거나 놀라게 해서 보리심을 깨닫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해진 진언행자를 각성케 하여 정진토록 한다는 말이다. 그 경각은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다그침으로서 여래의 본원(本願)을 기억케 한다. 그래서 경각은 보리의 증득이라는 본서(本誓)와 다르지 않으며, 증득이 곧 불(佛)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밀교에는 무명중생을 경각으로써 다스리는 분노존(忿怒尊)인 명왕(明王)이 등장하고 비로자나불의 사중법신 가운데 하나인 등류법신(等流法身)이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삼매야는 제장(除障)을 의미한다. 장애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중생들의 무명을 제거하여 여래의 법신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다. 제장(除障)의 삼매야는 밀교에서 호마법(護摩法)으로 이루어진다. 제장의 작법으로 식재·항복법이 전개되는 것이다.

삼매야(三昧耶)는 삼밀수행과 작법, 계율을 모두 포함, 진언행자 자신이 삼매야(三昧耶)

이와 같이 삼매야는 밀교의 수법과 교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밀수행과 작

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교는 삼매야의 법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율도 삼매야의 법에 포함된다. 그 계가 삼매야계(三昧耶戒)다. 삼매야계(三昧耶戒)는 밀교에만 있는 계다. 이 계에는 3종의 보리심이 언급된다. 보리심이 계체(戒體)이면서 계목(戒目)의 주요 내용이 된다. 모두 보리심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보리심이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면서 밀교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이룬 것까지도 포함한다. 3종의 보리심을 지니는 것이 삼매야계다. 삼보리심(三菩提心)은 행원보리심, 승의보리심, 삼마지보리심이다.

밀교의 계율뿐만 아니라 삼밀수행, 다양한 작법 등은 모두 삼매야로 연결된다.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방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행하는 진언행자 자신도 곧 삼매야이며, 자신의 몸이 삼매야이며, 마음이 삼매야이며, 자신의 삼밀수행과 지계행(持戒行)도 모두 삼매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곧 부처이며 삼매야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삼매야를 이루소서. ‘나모 사만다 발타남 아삼미 달이삼미 삼마에 사바하’.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생기차제 대유가와 대성취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인도불교의 역사상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출현은 인도불교를 밀교의 역사로 뒤바꾼 대혁명을 가져왔다. 석존의 입멸 후 5백 여의 부파불교시대를 정각과 거리가 먼 난해한 학자들의 유희 정도로 평가한 혹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파불교 시대 불전문학에 나타난 보살수행이야말로 훗날 초기대승경전과 진언론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불전문학의 화제는 석존의 전생보살에 가탁한 보살도이며, 석존이야말로 진언론 수행의 진정한 스승이다. 밀교에서 비로자나여래의 삼매야형은 불탑이다. 불탑은 석가모니

부타의 영광을 모신데서 비롯되었지만 부파의 학장들은 불탑으로부터 보편적 진리와 정각자를 상기하고, 비로자나여래를 상상해내었다.

우연히 보게 된 어떤 기고는 양부만다라의 모양을 두고 대장계만다라를 여성성, 금강계만다라를 남성성에 배대하고 양부만다라에 성력적인 요소가 잠재해있다고 주장하였다. 양부만다라는 성적 소재와 관련지를 그 어떤 역사적 연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오해는 일부 일본 학자의 주장을 맹신한 과거 연구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진언문에서 성적 소재가 실천원

리에 본격적으로 개입된 것은 후기밀교시대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양만다라가 처음부터 이지불이(理智不二)의 일관된 설계에 의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양만다라에 대해 여성성과 남성성을 유추할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석존은 수식관(數息觀)을 통해 정신과 호흡, 육체를 지속하는 생명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다. 신수심법(身受心法)을 구성하는 육체, 감수, 마음, 법(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연기의 무아성(無我性)을 실현하는 것이 수식관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남성성이

나 여성성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붓다는 육체로 인해 야기된 번뇌만을 지도했으며, 외경과 육체, 감각의 수용에 대해 유무(有漏)·무무(無漏) 여부만을 문제 삼았다.

석존을 정각으로 이끈 12지연기의 관찰은 무명으로부터 생노사에 이르는 12단계의 연역적 과정이다. 지금도 실제 테라와다 수행에 있어서도 연기의 무아성에 순연(順緣)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후기밀교의 수행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다. 관상의 과정에 나타난 성의 소재는 감각의 영역을 확장한 것일 뿐이다.

밀교를 포함해 불교수행에 있어 성 자체가 진리의 깨달음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전세계 종교 가운데 오로지 힌두교의 샤크띠즘만이 성에 담긴 생명력에 브라흐만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후기밀교는 반야지에 의한 성의 관조를 강조한다. 수식관과 동일하게 연기성과 무아성을 망각한 유무, 무루의 망분별(妄分別)만을 문제 삼는다. 생기차제 관상(觀想)의 과정에서 무아

의 진리에 수순(隨順)하는 도량의 의례와 관정이 생기차제에 존재할 뿐이다.

생기차제의 대유가는 신어심의 범주에 한정된 관상이다. 대성취야에서 비로소 감각을 성의 영역까지 확장된 관상을 시도한다. 상세한 관상법은 성취법마다 다르다. 본질적으로 인도 후기 밀교수행에서 육체와 감각을 확장시킨 성을 수행의 소재로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무수한 수행자들이 꿈속이나 아뢰야식의 저변에 존재하는 인아(人我)의 종자, 성으로 부터 야기된 미혹함이 존재해왔다. 나란다대학의 학장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재수행을 의제화 하여 후손에게 그 지혜를 전했다.

밀교를 공부할수록 석존시대와 부파 불교시대를 비롯한 역사의 이해가 필요함을 느낀다. 불교사를 외면하면 불교와 외도를 구분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불교대학의 과목소개들을 살펴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힌두교의 명상과 불교의 선정, 유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수나 학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



한다. 개인적으로 밀교수업을 밀교명상으로 바꾸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출판사 사장들은 서책 제목에 밀교라는 말을 넣는 대신에 의례나 의제, 도량이라는 말을 넣기를 종용한다. 이유인즉슨 밀교라는 서체에 대해 독자들이 난해함을 느끼고 책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 자세한 다른 배경은 나랏돈을 얻을 수 있는 확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말법시대일 수록 진리를 정면으로 탐구하고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시아본사(是我本師) 석존의 가르침과 이를 계승한 나란다대학 아사리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분들은 외롭지만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수인사 교도



저희는 **포항 과메기** 만을 사용합니다.

포항 향토음식 전문점

다미국

예약문의 010-7531-3786
010-5407-3796



다미국 **특별** 과메기 판매!

● 과메기 10마리(20쪽)
₩28,000(2~3인)

● 과메기 20마리(40쪽)
₩42,000(4~6인)

(물미역, 쪽파, 마늘, 고추, 김, 배추, 젓가락, 초장 포함)

※ 추가옵션

물미역 5,000원 / 초장 5,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
야채 1세트 추가시 10,000원

※ 계좌 : 농협 356-05391771-13 박금화

종합 동해중 소식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교육활동 환류 워크샵 실시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동해중학교 책마루(학교 도서관)에서 전체 교직원들을 비롯한 각 학급의 학생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2019학년도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교육활동 환류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된 워크샵 일정은 학부모 대표는 도서관에서, 교직원들은 각 부서 및 학년별로 편성된 교실에서, 학생 대표는 특별실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협의 내용은 2018학년도에 추진된 각종 사업이나 행사 중에서 장려할 점과 개선할 점 및 폐기할 사업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2019학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협의 및 검토 후 발표를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신규 부장 및 기획회의를 통해서 재점검 후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중 인상적인 것은 참여율을 제고하고 전달의 극대화를 위해서 학부모의 모든 설문 조사를 웹설문 조사 및 다모아앱 참여로 전환하는 것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학력업 과정 운영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에 향상되었다는 의견,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타 학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연수 및 특강과 상담 및 지도의 결과, 학교폭력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경우는 체육대회 시 종목을 다양화 하고 형식

적인 교문지도는 지양해 달라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어떤 해보다도 열띤 의견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학년도에는 우리 학교도 신용카드 스쿨 뱅킹 결제 시스템 도입,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시 수저 제공,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제 도입, 수학여행 실시할 때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는 의견, 졸업여행도 실시해 달라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학교장은 본 워크샵을 통해 본 워크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복 개선의 경우도 현재의 교복은 20년이 넘은 낡은 모델인 만큼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볼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전 교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동해중=탁상달교장



참회는 자기 양심과 진면목 혼자서만 비추는 거울

- 새해 꿈과 소망 세모 참회 없인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 사는 모습 법 안에 있지 못할 때, 그 세상 시끄러워져

한해가 또 저물어 간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바라보며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행이 자신만을 비켜가길 바라고 또 나름대로의 부푼 꿈에 젖는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나 설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해동안 계획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에 빠지기 보다는 자신과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끄러웠던 일은 없었는지 돌아켜 보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참회는 거울이다. 자기의 양심과 진면목을 혼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회는 그리고 자기에게 눈을 뜨는 일이다. 밖으로만 눈 돌리다보니 미처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만치 바쁘게 보낸 한해를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회다.

참회할 줄 아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 뿐이다. 그 어느 동물도, 심지어는 절대신조차도 참회는 모른다. 오로지 사

람만이 자기를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이다.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행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적은 외부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귀는 타종교의 신앙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 속에서 그것들은 호시탐탐 자신을 유혹해 오거나 흔들여놓지 않았던가.

새해의 꿈과 소망은 세모의 참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한 해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방해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새해는 진정한 새해로 내게 찾아올 것이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세모를 맞으면서도 참회가 없다면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 결코 인생이 익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사는 모습이 법 안에 있지 못할 때, 그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세간엔 올 한 해 시끄러웠던 일들이 여전히 시끄럽게 많이 남아 있다. 돌아켜 보면 지나온 여러 해가

늘 그랬던 것 같다. 더구나 해를 더할수록 그 법과 어긋나 있는 모습들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쓸쓸함 역시 해를 더할수록 더하다. 다투고, 속이고, 감추고, 외면하고, 빼앗고. 그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기가까지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 친구가 서로 무섭고, 이웃이 서로 무섭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 무섭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무서운 일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무섭다. 문제는 그렇게 여법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슬프고 아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몰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나의 부모와 자식이 몰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여법하지 못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친구라는 말, 이웃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 어르신이라는 말, 위정자라는 말이 따뜻한 말로 있어야 한다.

이제 부처님의 시절과 또 한 해 멀어졌다. 멀어지는 일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부처님 법은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

을 행하면 과로운 과보 받고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 받는다”고 하셨다. 그 과보까지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빠르고 늦음의 시간과 속도 차이가 있을 지언정, 과보를 받는다는 진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해야될 일이라면 우리가 하자. 부처님 가까이 사는 우리가 먼저 걱정하자. 얼마 안 있으면 곧 다가올 새해 아침. 우리에게 다시 값진 시간이 펼쳐진다.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 당장은 지치고 지루한 삶이지만,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그 희망의 끈을 꼭 붙들고 놓지 말자. 오늘, 향 한 자루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서원하자. 우리 모두 여법한 새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선행을 많이 쌓는 자비심으로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말이다. 다가올 새 해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행안위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

됐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유성연 기자

2019년까지 생수·음료 페트병, 재활용 쉬운 무색으로 바뀐다

국내 페트병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음료·제약 업체들이 유색 페트병을 2019년까지 재활용이 비교적 쉬운 무색 페트(PET)병으로 교체한다. 환경부는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페트병 출고량 26만t 중 55%를 생산하는 제약·음료업체 등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생산업체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CI제일제당·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에경산업·오비맥주·하이트진로·농심·대성·광동제약·동아제약·코카콜라음료·남양유업·매일유업·빙그레·서울우유·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해태에이치티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2019년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하되, 패주처럼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갈색, 녹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이행되면 음료와 생수병의 무색 페트병 사용 비율은 2016년 63.5%에서 2019년 85.1%까지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의 생산을 금지했다. 페트병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종이라벨 사용과 몸체에 직접 하는 인쇄도 제한된다. 또한, 2020년까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은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등의 재질로 대체된다. 알약이나 전자제품 포장재와 투명 지퍼백 등에 사용되는 PVC는 열을 가하면 유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재질들과 육안으로 구분이 잘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꼽힌다. 페트병 외에 요구르트병, 샴푸 등 단일한 재질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용기류 제품을 생산할 때도 몸체와 뚜껑을 같은 재질로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 품목별 제품 특성을 고려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올해 6월부터 매년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와 협의해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지형 기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1월 14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7668610

●우리은행:122-177171-13-104 ●예금주: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우인	12/4	10,000
	보명심	12/4	10,000
	전세형	12/5	30,000
	한영란	12/17	1,000,000
관성사	황성녀	11/29	10,000
금강합창단	일동	12/17	600,000
기로스승	해정	11/29	10,000
동해사	김진화	12/17	10,000
	탁상달	12/19	20,000
백월사	김강미자	11/29	10,000
	지희심	12/12	100,000
법천사	반야심	11/30	10,000
법황사	박미경	12/18	10,000
사원명무기명	성수현	12/12	10,000
	정상철	12/14	10,000
	김갑선	12/19	10,000

삼말사	신말심	12/4	20,000
성화사	신정희	12/18	100,000
	우담바라회	12/18	20,000
수인사	정순득	12/17	10,000
실지사	정경자	11/14	10,000
	조성우	12/4	20,000
	유승우	12/4	10,000
	유승우	12/16	10,000
	유승태	12/16	20,000
	인지심	12/16	20,000
	법우	12/16	20,000
	하재희	11/26	5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11/30	2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12/10	50,000
정각사	안한수	12/10	10,000
	변순개	12/12	10,000

조계종호국사	적민스님	12/18	50,000
지인사	승효재	12/4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1/26	80,000
총지사	손경옥	12/17	10,000
	원당	12/17	10,000
	묘심해	12/17	10,000
	신용도	12/17	10,000
	이수경	12/17	10,000
	박정희	12/17	10,000
	최유정	12/6	5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무명씨	12/4	10,000
화음사	강승훈	12/10	5,000
	강승민	12/10	5,000
	최영미	12/10	50,000
홍국사	지정	12/4	20,000

절 기 이 야 기



십이월은 늦겨울이라
소한 대한 절기로다.
눈 덮힌 산봉우리 해 저문 빛이로다.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새옷을 장만하고,
무명 명주 끊어 내어
온갖 색깔 들어 내니,
빨강 보라 연노랑에
파랑 초록 옥색이라.
한편으로 다듬으며 한편으로 지어 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헛대에도 걸었도다.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장만 하오리라.
-농가월령가 12월령 중에서-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양력 1월 20일경이다. 음력으로는 12월 중기이며, 양력으로는 소한 15일 후부터 입춘 전까지의 절기이다 태양의 황경은 300도가 된다.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에 이룰수록 추워지며 1월 15일 경 대한에 가까워지

대한

삼일사 주교 남혜 정사

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대한은 큰 추위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이는 대한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기는 그렇듯 돌고 돈다. 유달리 빨리 찾아온 겨울 추위이지만 봄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싹트우고 있다.

대한은 음력 설달로 매듭을 짓는 절후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경이므로 다소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출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죽었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즉 소한 무렵이 대한 때보다 훨씬 춥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는 목은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 사이, 즉 목은해와 새해 사이라는 상징적인 시기라고 한다. 또, 신구간 시기에는 가신(집을 지키며 집안의 운수를 좌우하는 신)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집안 손질, 집수리 등을 하는데 이때만큼은 집안을 고

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대한을 겨울을 매듭짓는 절기로 믿어왔다. 12월 설달에 드는 대한은 매듭을 짓는 절기라고 생각하고 대한의 마지막 날을 절분이라고해 계절적 연말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옛 풍속에서는 이 날 밤을 해넘이라고 해서 방이나 마루에 콩을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다.

대한이 다가오면 하루 한 끼, 꼭 죽을 먹었다고 한다. 대부분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나무 한두 집 해오는 일 외엔 일이 없어 놀고먹느라 삼시 세끼 밥 먹기 죄스러워서 죽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 옛사람들은 대한 즈음이 되면 지난해에 농사지는 곡식으로 찰밥을 지었으며 김장 후에 말려둔 시래기나 무청으로 따뜻한 시래깃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을 무쳐 먹기도 했다. 이는 따뜻한 음식을 통해 추운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한은 긴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며 푸릇푸릇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오늘 저녁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게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눠먹으면 좋겠다.



가난하지만 휴머니즘이 있어 아름답다 드라마 <서울의 달>



<서울의 달>을 쓴 김운경 작가는 한국 드라마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뚝배기> <한지붕 세가족> <옥이 이모> <형> <파랑새는 있다> <작파> <유나의 거리> 등에서 그는 한국서민의 애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드라마들이 변호사, 의사, 실장님, 왕 등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그는 거지와 삼류 총선생, 소매치기 전과범, 창녀, 차력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여 드라마가 어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공기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성공한 사람의 삶 못지않게 재미있고 만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에 대해 예기하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에 휴머니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배고픈 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권하고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 데 연탄을 빌려주고, 차비를 빌려주고, 심지어 옷까지 빌려 입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1994년 MBC에서 방영했던 <서울의 달>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 “지금은 왜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가?”입니다. 25여년이 지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가장 인상 깊은 드라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던 드라마는 당시 평균 시청률 40프로를 유지하면서 대중성 뿐만 아니라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드라마는 시골 출신의 두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거나 퇴출되거나 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해가던 고속성장 시절 시골 출신의 청년이 이런 사회변화를 어떻

게 따라가는데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데 다소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김운경 작가 특유의 유머와 사실적 묘사로 재미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시민의 삶을 김운경 작가처럼 리얼하면서도 정감 있게 보여주는 작가는 없을 것입니다. 각박한 삶이 시청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가난에 대해 초연한 사람처럼 그것을 또한 유머로 재생산해내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김홍식(한석규)과 박춘섭(최민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홍식은 일확천금을 노렸습니다.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사귀 인생을 한 판 뒤집고 싶어 하는 인물로 고향친구 춘섭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올라오게 하고는 돈 5백만원을 가로채서 사채 빚을 갚고 중고차도 한 대 살 정도로 도덕성이 부재한 인물입니다. 극단의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반면에 춘섭은 그런 홍식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춘섭은 늘 입버릇처럼 홍식에 대해서 “정신상태 자체가 틀려먹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홍식이 배짱이 같은 인물이라면 춘섭은 개미 같은 인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화에서처럼 개미 춘섭은 나름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서울살이에 정착하는데 반해 한탕주의를 노리던 홍식은 결국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서 죽음을 맞습니다.

드라마에는 홍식과 춘섭처럼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문간방에 사는 상국네가 춘섭과 같은 사람들로, 상국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상국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달동네를 떠납니다. 흠여머니를 모시고 사는 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고 부부 간에도 정이 좋은 이들 부부는 소시민 삶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나중에 춘섭이 바로 상국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홍식은 달동네 단칸방 월세조차도 제때 못 내는 박선생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드라마에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고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에 합당하다면 그것이라도 동원해서 목적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양극단의 인물들을 통해 서사의 재미를 보여주면서도 소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보여주었고, 한편으로 집 주인과 셋집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갑과 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달>에서 보여준 가난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연탄이 없어 남의 연탄을 훔치기도 하고 차비를 빌리기도 하지만 가난이 가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자비심일 것입니다. <서울의 달>에서 김운경 작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비심을 발견했습니다. 문간방에 세 들어 살면서도 더 가난한 사람에게 아랫목을 내줄 마음의 여유쯤은 있고, 친구 돈을 가로채는 악당이지만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진심을 보여주고, 자신을 속인 친구지만 오죽하면 저러라, 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은근히 집을 갖고 유세를 하는 집주인조차도 배고픈 사람에게 아침을 대접할 정도의 자비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가난하지만 가난이 갖고 있는 부정적 기운보다 오히려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달>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따뜻한 자비심을 끄집어 내 보여주었던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자유 기고가 김은주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②1

梅 蘭 菊 竹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국화 따라 그리기 II

1

2

완성

3

4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한마음 겨울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

2019.1.22 ~ 24

대상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장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내용

여행후기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주최

불교총지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불길 솟은 차 뛰어든 고교생·시민...



최근 광주에서 차의 불길 속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구해낸 용감한 여러 시민들이 화제가 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훈훈한 뉴스이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삼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경차가 버스와 충돌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경차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경차 운전자는 다리가 끼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운전자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 귀가 쫄던 고교생 오대호(18·고3)군과 친구 송현호(18)군이 이를 목격하고 불 난 차로 달려갔다. 찌그러져 열리지 않는 차 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시민들도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나들, 하나들” 하며 힘을

모아 문을 때내기 시작했다. 교통 단속을 하다 이를 본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정현 경위는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불을 껐다. 소화기가 부족하자 시민들이 달려가 여가지거서 소화기를 가져왔다. 경차 운전자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연차 뒷문으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다. 손에 따를 쥐게 하는 위기가 발생했는데 순간,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 둘 차량에 달려들어 힘을 모았고, 상가와 차량 소화기를 동원해 불길을 잡으면서, 결국 운전자 구출에 성공했다. 시민들 중에는 여성과 고등학생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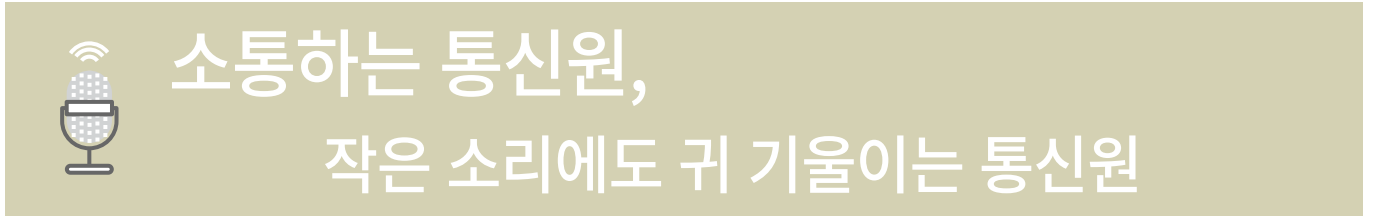
한 TV 프로그램에 이 날 인명구조에 큰 힘을 보탠 고등학생 두 명이 나와 그 날의 상황을 인터뷰를 했다. 송현호(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3학

년)군은 “차가 터질까봐 솔직히 너무 무서웠는데 안에 운전자 분이 더 무서우시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하나씩 좀 더 용기가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대호(광주보문고등학교 3학년)군은 “안에 다치신 분을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 밖에 진짜 안 들었다. 무서웠던 것보다는”이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광주시장도 “구조에 동참한 시민들도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빛나는 시민의식과 침착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며 “광주가 의향의 도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고 광주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많다. 그 날 광주는 따뜻한 밤을 보냈을 것이다.



◀ 11월 20일, 총지사, 올해 김장김치를 담그었다. 여러보살들과 종무원들이 함께 김장 담그는 일에 참여했다.
통신원=백귀임



12월 14일,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법경 정사)는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지회장 김은숙 보살)와 종령님을 모신 가운데 총기 47년도 송년 모임을 가지고 금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통신원=최해선



12월 16일, 벽룡산악회 송년 산행. 한해 마감하며 벽룡산악회 2018년 산행을 감악산 출렁다리에서 회향했다.
통신원=양재범

◀ 정각사,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문인화(사군자)수업 진행. 실보사 덕광 정사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승과 교도가 함께한 금년 마무리 수업을 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접수하기 바란다.
통신원=한미옥



12월 22일, 수계사, 동지불공을 맞이하여 불공도 하고 마을회관에 팔죽도 보시하면서 교도들과 함께 팔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총지중 종무원 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이수



불교총지중은 12월 18일 종단 종무원(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사업장 산업안전교육 5시간을 이수하였다. 교육은 통리원 반야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전불감증과 사고예방에 관한 산업안전 및 보건 3시간,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1시간, 장애인 유형별 인식개선 1시간 교육을 산업안전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 전임 이동일 교수가 맡아 교육했다.

Q&A

문고 답하기

Q 경전에 나오는 악마가 사탄, 악귀 같은 것인가요?

불교에서 악마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사탄, 악마, 악귀 등의 귀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악마가 나타나 계송으로 부처님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대는 인천(人天)의 세계에서 악마의 율가미에 걸렸도다. 악마의 밧줄에 묶였도다. 사문이며,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악마의 이 같은 계송에 부처님도 계송으로 대답한다. 나는 인천의 세계에서 악마의 율가미로부터 벗어났다. 악마의 밧줄로부터 탈출했다. 파괴자여, 너는 이미 패배했다.’

경전을 읽다 보면 악마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

해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악마상응(惡魔相應)’이라 해서 아함부의 여러 경전 가운데는 이 같은 25개의 악마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은 부처님의 정연한 논리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경전 속에 나오는 악마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역 『잡아함경』에 어느 때 부처님이 사뭇티(舍衛城)의 제타숲 아나타핀디카 동산에 계실 때 라타(羅陀)라는 비구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악마 악마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악마(마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라다여, 색(육체)이 곧 마라다. 수(감각)가 곧 마라다. 상(표상)이 곧 마라다. 행(의지)이 곧 마라다. 식(의식)이 곧 마라다. 라다여, 이렇게 보고 나의 가르침을 들었던 성스러운 제자들은 색을 싫어해 여의고, 수를 싫어해

여의고, 상을 싫어해 여의고, 행을 싫어해 여의고, 식을 싫어해 여의었다. 또 탐욕을 싫어해 여의었다. 이렇게 탐욕을 떠남으로써 마침내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언제나 채택해 온 인간 분석 방법에 의하면 인간이란 존재를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오온(색,수,상,행,식)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모두 악마(마라)라고 말합니다. 악마란 결코 인간을 현혹하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해 스스로 걸려든 마음의 속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를 놓고 망설인다는가 하는 혼란한 심리상태를 악마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 속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그 속 뜻을 잘 파악하는 방법이라 봅니다.
법일정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재단 임직원 일동

만다라요양원/일원어린이집/잠원햇살어린이집/초록어린이집/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양지1동 복지회관 어린이집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어울림 소식

총지사 최해선 보살이 서울경인 마니합창단 단장으로 선출되었다.(임기, 총기48년 1월 1일부터)



▲ 정각사 특락전 조감도

불교총지종은 기해년 새해에도 진언행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통리원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통리원	교구장 법경	교구장 정인화	교구장 안성	교구장 지정
총무부장 우인	관성사 주교 인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개천사 주교 우인	만보사 주교 승원
재무부장 원당	밀인사 주교 법등	단향사 주교 지홍	건화사 주교 법상	백월사 주교 지공
교정부장 법일	법천사 주교 법경	덕화사 주교 시정	국광사 주교 혜안정	법황사 주교 서령
사회부장 지정	벽룡사 주교 법일	밀행사 주교 도현	단음사 주교 수현	중원사 주교 정정심
종무원 일동	시법사 주교 서강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안성	혜정사 주교 진일심
	실지사 주교 법우	삼밀사 주교 남혜	수계사 주교 현일	흥국사 주교 지정
중앙종의회	정심사 주교 화령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안성	
사감원	지인사 주교 승효제	실보사 주교 덕광	승천사 주교 지선행	
원의원	총지사 주교 원당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행원심	
전당건설위원회		일상사 주교 수행월		
총지종유지재단		자석사 주교 도우		
사회복지재단		정각사 주교 법상인		
		화음사 주교 록경		
법장원		동해사 주교 법선		
중앙교육원				
밀교연구소				
학교법인 동해중학교				